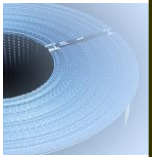


2007.12.11

POSRI CEO REPOR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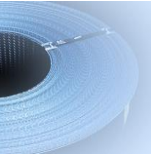
베트남 경제 및 철강산업 성장잠재력



지역연구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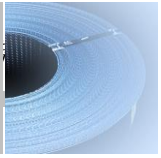
박경서, 임정성, 나희량, 나병철

Executive Summary



〈베트남 경제 및 철강산업 성장잠재력〉

- 베트남 경제는 최근 8%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곧 한국의 7,80년대와 같은 고도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철강수요도 2020년에 26~40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
 - 베트남은 FDI를 통한 높은 자본축적 효과와 정치사회적 안정 및 WTO 가입 등 세계경제질서의 통합 등에 힘입어 곧 한국과 중국이 경험한 도약단계 및 고도성장기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
 - 베트남의 철강수요는 이러한 경제성장의 배경과 베트남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, SOC 등 건설업 호조 등으로 2020년에 약 26백만 톤 전망.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인당 철강소비 패턴을 베트남에 적용하여 전망할 경우 36~41백만 톤에 이를 전망
- 베트남은 아시아 중심권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아시아 경제권의 생산 및 물류 중심지로 부상되고 있으나, 아직 법제도 및 행정절차의 낙후, 중간관리자 및 기술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내재
 -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회랑 및 철도 건설과 AFTA 가입 및 주변국과의 FTA 체결 추진, 한국과 21세기 포괄적 동반관계 선언 등 베트남의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전략적 가치 점차 상승
 -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법제도 미비, 임금상승, 특정 부문의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, 문화 및 관습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표출
- 베트남은 경제 및 철강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한국 철강업체는 축적된 지식·역량을 기반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. 한국 철강산업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 철강업체의 Globalization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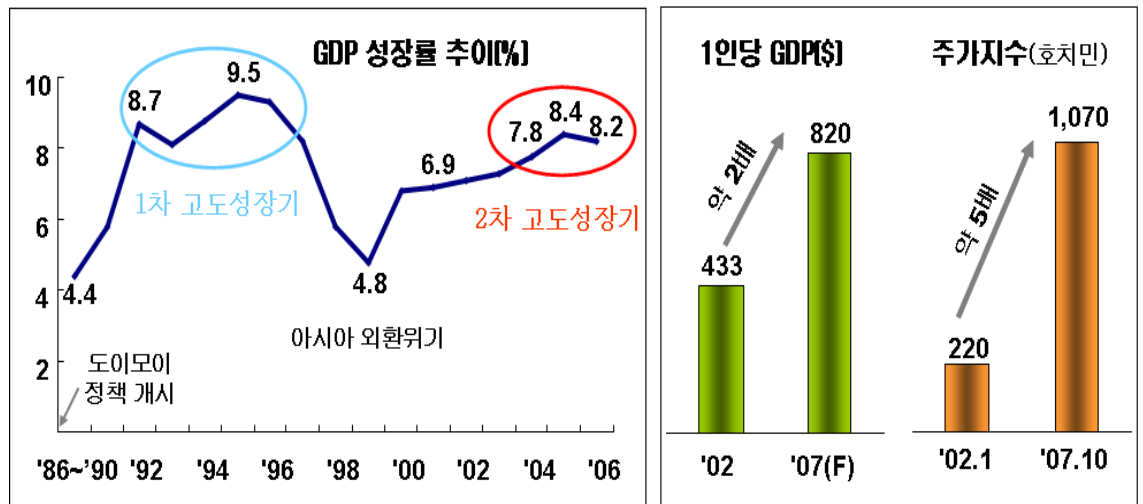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베트남 경제 현황 및 전망	1
II. 철강산업 성장 특성 및 전망	3
III.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	4
IV. 국가 리스크 및 현지 진출 시 고려사항	6
V. 결론	8

I. 베트남 경제 현황 및 전망

□ 베트남 경제는 최근 3년간 평균 8%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중국, 인도에 이어 아시아 高 성장국으로 부상함으로써 Post-BRICs 중 가장 주목 받는 신흥시장으로 등장

- 인당 GDP는 지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여 2007년에 약 820 달러(구매력 기준 4,025달러)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, 주가지수도 같은 기간 5배 상승하는 등 베트남 경제는 제2의 고도성장기에 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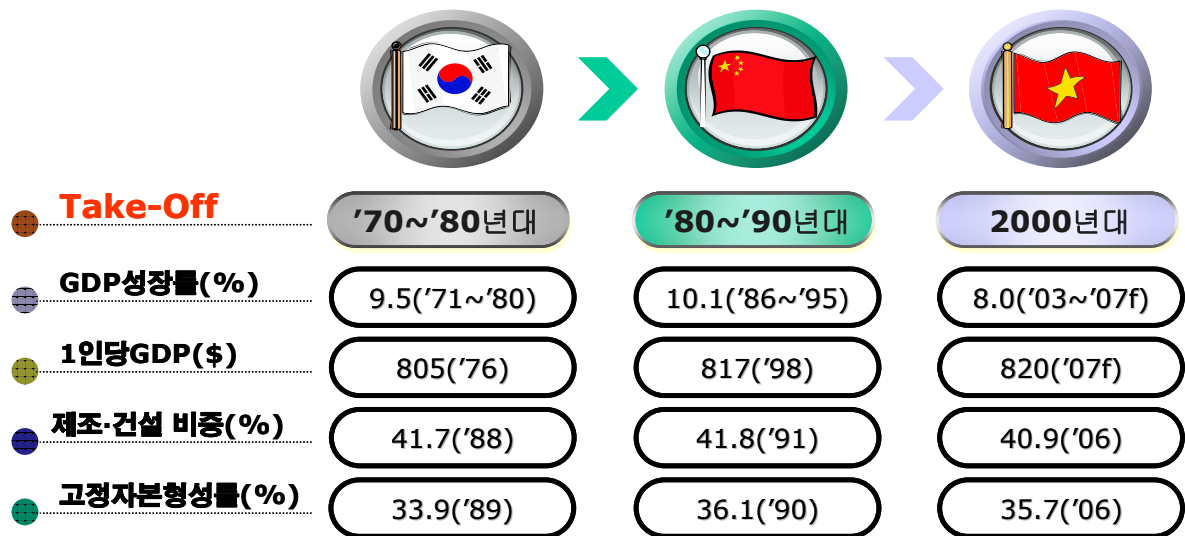


□ 베트남 경제의 고도성장은 개혁·개방 및 FDI를 통한 높은 자본축적 효과와 정치사회적 안정 및 WTO 가입 등 세계 경제질서로의 통합 등에 기인

- FDI는 2006년 120억 달러를 달성해 과거 최고치를 경신했으며, ODA 유입액 30-40억 달러/년, 해외교포 송금액 약 60억 달러/년에 이르는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 증가
- 정치체제는 총서기장, 총리, 주석이 적절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도 아직은 공산당 일당 체제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발이 미약해 정치사회적 안정 지속

- 2006년 10차 전당대회에서는 도이모이 20주년을 맞이하여 경제 전문가들을 국가 지도부에 배치하고, 당헌을 개정하여 자본가의 공산당 영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제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 표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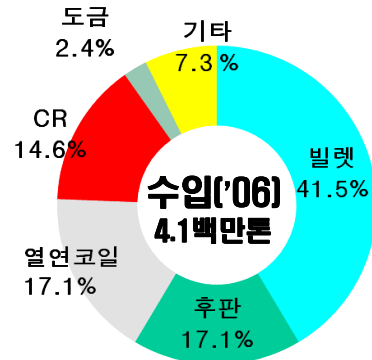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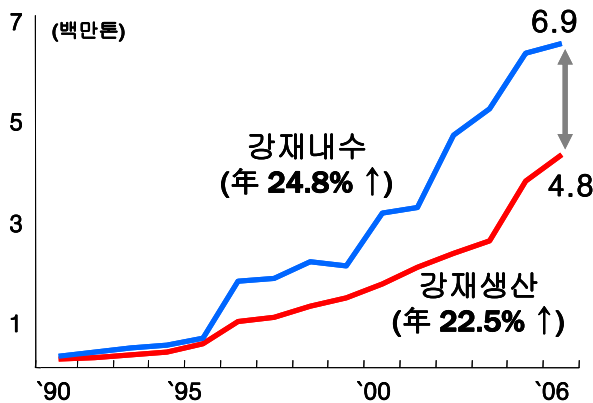
- 한국과는 20~30년 중국과는 10~20년 격차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경제는 조만간 도약(Take-Off)단계에 진입하여 한국과 중국이 경험한 경제성장 예상



- 베트남 정부 및 국제 전망기관은 향후 10년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7~10%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, 정치 사회의 지속적 안정과 차질 없는 민영화 진행 시 더욱 견실한 성장 예상
- 베트남 정부는 제8차 사회 경제개발 계획('06~'10)의 최우선 목표를 저소득국가 탈피에 두고 2010년에는 인당 GDP 1,000달러 달성, 제조업 및 건설업 비중 43%로 제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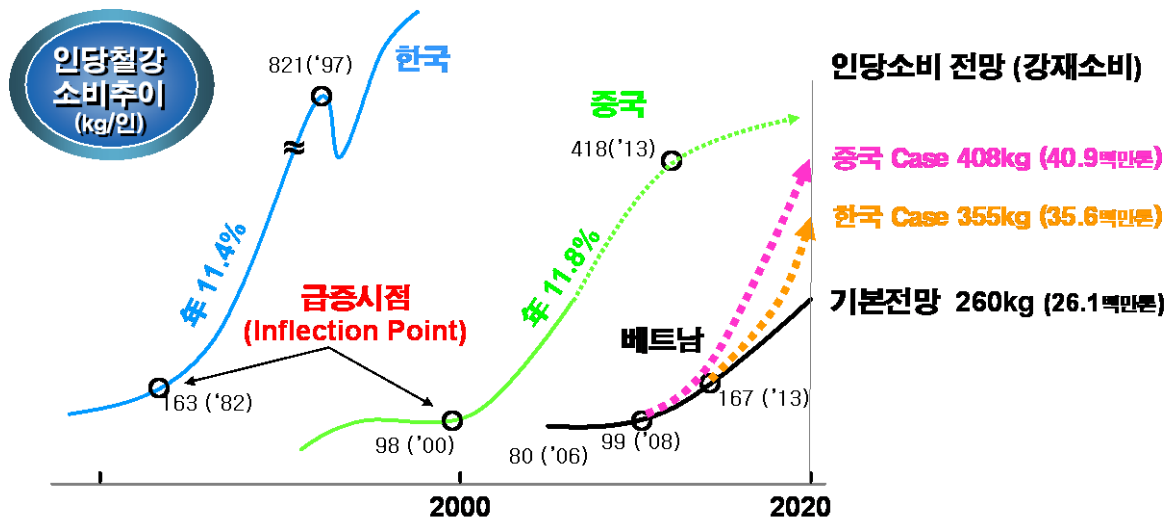
II. 철강산업 성장 특성 및 수요 전망

- 베트남 철강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간 20%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, 설비능력 부족으로 수입의 의존도 심화
 - 2006년 총 강재내수는 6.9백만 톤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생산은 4.8백만 톤에 불과하여 반제품 포함 4.1백만 톤을 수입했으며, 그 중 60%가 중국과 러시아산
 - 생산구조는 봉형강류가 70% 이상을 차지하고 판재류 자급률은 48%에 불과하고 특히 열연, 후판을 100% 수입에 의존. 그러나 도금강판은 이미 과잉능력을 보여 가동률이 60%에 불과



- 향후 강재수요는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및 SOC 등 건설업 생산활동에 힘입어 2020년 26.1백만 톤 전망
 - 202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7.5% 성장한다면 2020년 강재수요는 26.1백만 톤, 판재류는 연평균 10.8% 증가하여 12백만 톤, 열연코일은 12.1% 증가하여 7.8백만 톤 전망
 -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인당 철강소비 패턴을 베트남에 적용하여 전망할 경우, 2020년에 최고 41백만 톤에 이를 전망

- 한국의 인당 철강소비는 1982년 163kg에 이른 후 자동차, 조선 등 제조업 성장 본격화와 건축경기 활성화로 급속히 증가해 1997년 827kg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11.4% 증가
- 베트남은 2013년에 인당 철강소비가 167kg에 이를 것으로 전망. 이후 한국의 철강소비 패턴을 따른다면 2020년 베트남의 철강소비는 35.6백만 톤에 이를 전망
-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의 인당 철강소비 패턴을 베트남에 적용할 경우, 베트남의 철강소비는 2020년 40.9백만 톤 전망



Ⅲ.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

- 베트남은 아시아 중심에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 입지와 주변국과의 FTA 체결로 아시아 경제권의 생산 및 물류의 중심지로서 가치 상승
 - 태국-라오스-베트남(다낭)으로 이어지는 동서회랑이 2006년 말 개통된 데 이어 추가로 남북회랑(2011년), 제2동서회랑(방콕-프놈펜-호치민), 중국-ASEAN 중단철도망(2015년) 건설 등이 추진되면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단일경제권 움직임 가속화

- ASEAN 6개국은 시장규모 확대 및 성장동력 촉진을 위해 역내 FTA(AFTA)를 체결하고(2007년 5월 발효) 이어 중국, 한국, 인도, 일본과도 FTA 추진
 - 베트남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와 인건비 및 물류 측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거대 아시아 경제권 또는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



-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·유교문화권이라는 역사·문화적 유사성을 배경으로 최근에는 인적·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점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증진 확대
 - 베트남은 과거 1천년 이상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과거시험, 한자사용, 구정(Tiet) 등 한국과 유사한 중국문화 전래
 - 한국은 베트남과의 교역 및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교역액이 1992년 수교 이후 10배 이상 증가해 베트남의 7대 교역국, 누적 투자금액 110억 달러로 FDI 1위 국가로 등장
 - 한류바람을 타고 인적 교류도 활발하여 在베트남 한국인 교민 5만 명, 연간 베트남 방문객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, 在韓 베트남인 66천명('07.8월), 베트남 신부 15천명으로 매년 5천 명씩 증가

- 인구 84백만 명 중 30대 이하가 60%에 이르고 국민의 문자해득율이 96%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, 근면하고 낙천적인 국민성으로 양적, 질적 우수한 인력구조 형성

IV. 국가 리스크 및 현지 진출 시 고려사항

- 베트남의 국가 리스크는 아직 전 세계 국가 중 Medium수준에 머물고 있으나, 최근 급속히 개선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도 호전되면서 국가 신용도 상향 조정
 - *Global Insight* 발표에 따르면, 베트남의 국가 리스크 종합수는 정치적 안정과 치안의 안전성으로 2005년 3.06에서 2007년에는 2.87로 크게 개선
 - 비즈니스 환경도 178개국 중 91위를 기록하여 태국(15위), 말레이시아(24위)보다는 낮지만 필리핀(133위), 인도네시아(123위), 인도(120위)보다는 높게 평가(World Bank, 2007)
 - S&P사는 베트남의 국가 신용등급을 BB⁻(Positive)에서 BB⁺(Stable)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고, I.C.R.G는 베트남의 신용도 평가순위를 76위('05.9)에서 65위('06.6)로 상향 평가
- 한국 철강업계는 베트남 진출 시 법제도 및 행정절차, 환경규제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대응전략 수립 필요
 - 新투자법 및 新기업법이 발효되어('06.7.1) 내외국인 기업 간 차별대우가 철폐되고 외국인 투자대상 품목이 확대되었으나, 아직 세부시행령 미흡
 - 집단 의사결정, 관료주의, 행정체계 낙후로 인허가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환경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됨
 - 특히 투자허가는 기획투자부가 담당하고 토지사용 및 건축허가는 인민위원회가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의 이원화로 여러 가지 절차적 비효율성 존재

- 또한 메콩델타강 특수성 및 인민중시 사상을 반영한 新환경법의 발효('06.7.1)로 오염가능 산업에 대한 투자기피 확산 및 오염물 배출 방지대책 등 환경규제 수준 강화

□ 최근 내외국인 투자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데다 중간층 및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임금이 급속히 상승하는 등 인사·노무 측면의 어려움 대두

- 최근 인력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하노이, 호치민 등 특정 대도시 지역에 인구밀집 분포 현상과 전통적인 공동체 이탈 기피 관습으로 전국적인 인력 고용난 심화
-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최저임금의 40% 인상('06.2)불구 월평균 임금수준이 135달러로 아직 타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과의 격차 축소(태국 146달러, 말련 205달러, 필리핀 182달러)
- 고급기술인력 및 유능한 중간관리층 확보가 어렵고 언어문제로 정확한 의사소통에도 한계점이 노출되는가 하면 사업시작 후 6개월 이내 노조설립이 의무화

□ 공동체 문화의 전통과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간, 상하위직 간 평등주의 및 체면 중시 문화가 깊이 내재

- 사장과 직원 간, 박사와 고졸 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함. 특히 한국기업은 베트남의 여성중시 관습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분규가 발생
- 극진한 손님 대접 및 과도한 접대문화가 보편적이며, 선물 및私家 방문 받는 것을 존중과 관심의 표시로 인식

V. 결론

- 베트남은 경제 및 철강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한국 철강업계는 축적된 지식·역량을 기반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한 시장선점 필요
 - 베트남 정부의 개혁의지 및 경제개발 추진으로 철강시장의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,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 패턴이 한국과 유사한 반면 해외 경쟁사의 진입우려와 법제도 미흡 및 관습상의 특수성도 존재
 - 한국 철강업계의 베트남 진출은 베트남 정부의 선진국을 향한 꿈의 실현과 한국 철강업계의 Globalization 달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

박경서 수석연구위원 (Tel. 02-3457-8072, e-mail: kspak@posri.re.kr)

임정성 수석연구위원 (Tel. 02-3457-8084, e-mail: jsimm@posri.re.kr)

나희량 연구위원 (Tel. 02-3457-8129, e-mail: heeryang@posri.re.kr)

나병철 연구조정위원 (Tel. 02-3457-8071, e-mail: bcna@posri.re.kr)